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1.11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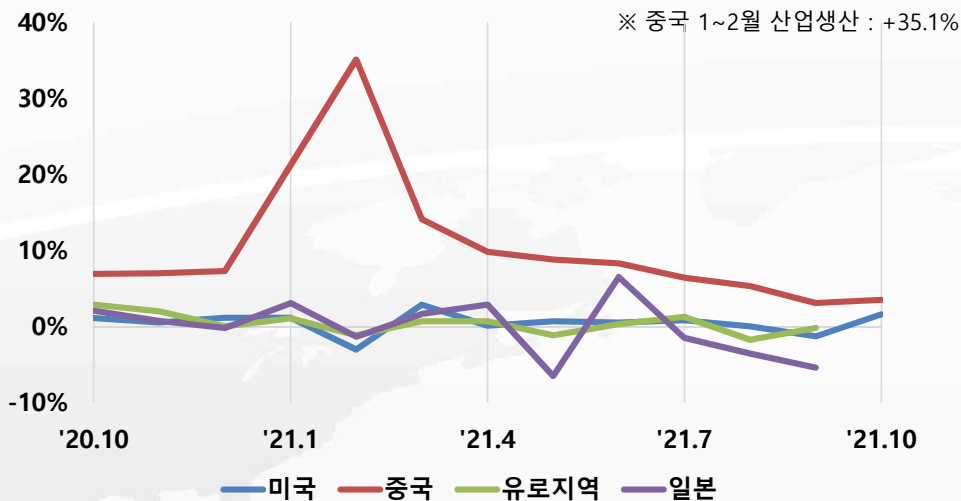
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공급망 차질,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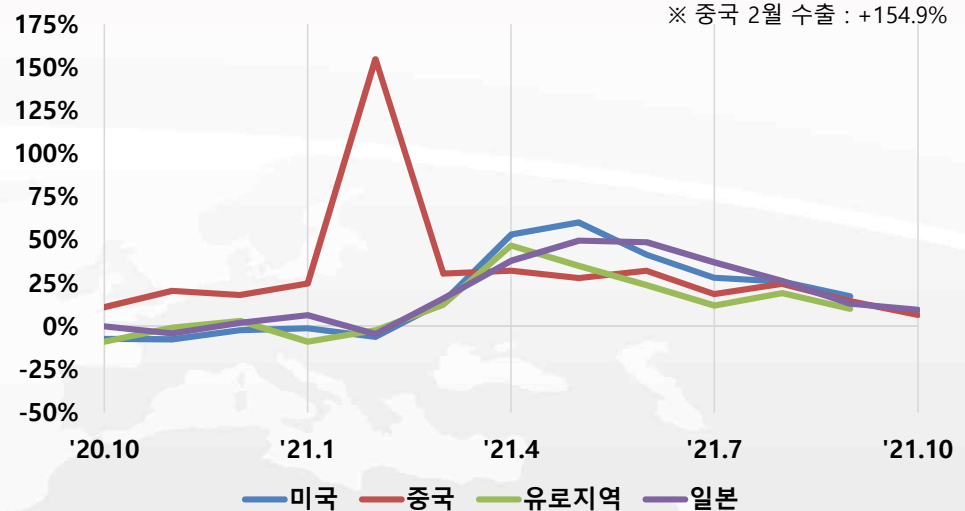
- (미국) 공급망 차질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소매판매 및 고용시장 개선세 유지
- 3분기 GDP 성장률(전기 대비 연율 +2.0%)은 크게 하락했으나, 10월 소매판매액(전월 대비 +1.7%)은 3개월 연속 증가세
- (중국) 전력난, 코로나 재확산, 부동산 산업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
- 3분기 GDP 성장률(전년동기대비 +4.9%), 하락, 10월 산업생산 증가율(전년동월 대비 +3.5%) 낮은 수준 유지, 소매판매는 소폭 회복
- (유로존)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독일 등 산업 생산 부진, 소매판매 감소세로 반전
- 3분기 GDP 성장률(전기 대비 +2.2%)는 견조세 유지, 9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0.2%) 및 소매 판매(전월 대비 Δ 0.3%)는 부진 지속
- (일본) 자동차 등 생산 위축 지속 등으로 3분기 성장률 및 산업생산 하락
- 3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(전기대비 Δ 0.8%), 9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5.4%) 3개월 연속 감소, 소매판매(전월 대비 +2.8%)는 소폭 회복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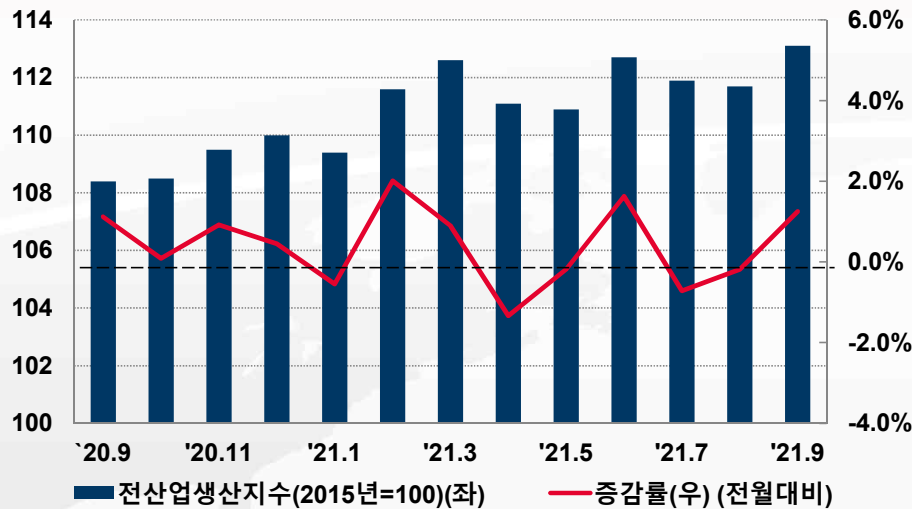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백신접종 확대 영향으로 서비스업 개선돼 전월대비 증가세 전환

- (생산) 9월 전산업생산은 추석 연휴로 광공업은 부진했으나 서비스업, 공공행정 개선으로 전월대비 1.3% 증가
 - (광공업 : △ 0.8%) : 기타운송장비(+5.2%), 기계장비(+3.6%) 등에서 증가, 자동차(△ 9.8%), 전기장비(△ 5.2%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1.3%) : 숙박음식점(+10.9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(+11.2%) 등에서 증가, 금융보험(△ 0.6%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2.1p)는 출하 대비 재고증가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월수출액 9월 이어 역대 2위, 8개월 연속 월 500억 달러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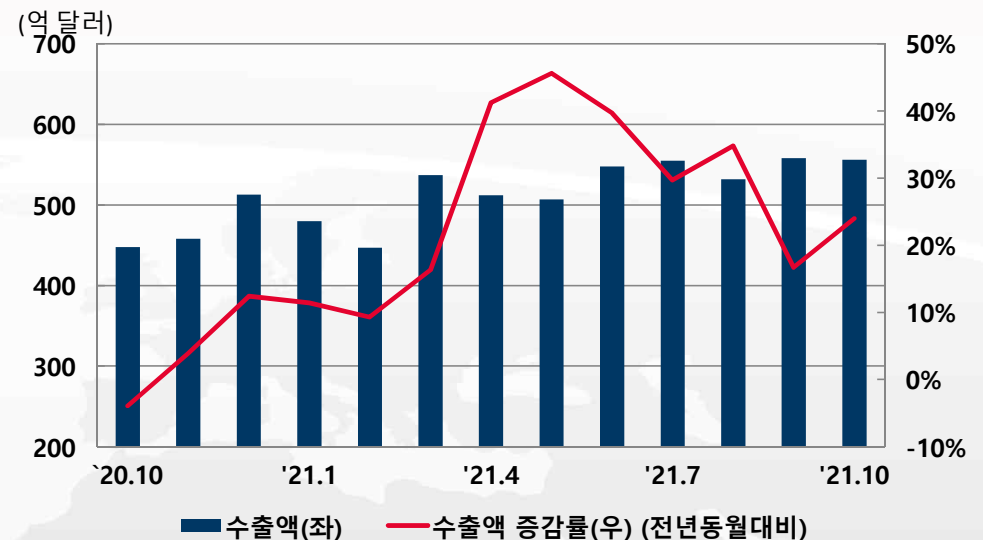
- 10월 총수출은 555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4.0%), 일평균 수출액 26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+24.4%) 기록
 - 中(+24.9%), 美(+22.9%), 일본(+35.2%) 등 주요국 뿐만 아니라 중동(+15.8%), 중남미(+27.6%), 아세안(+29.2%) 등도 선전
 - 반도체(+28.8%)는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, 석유제품(+138.1%), 석유화학(+68.5%)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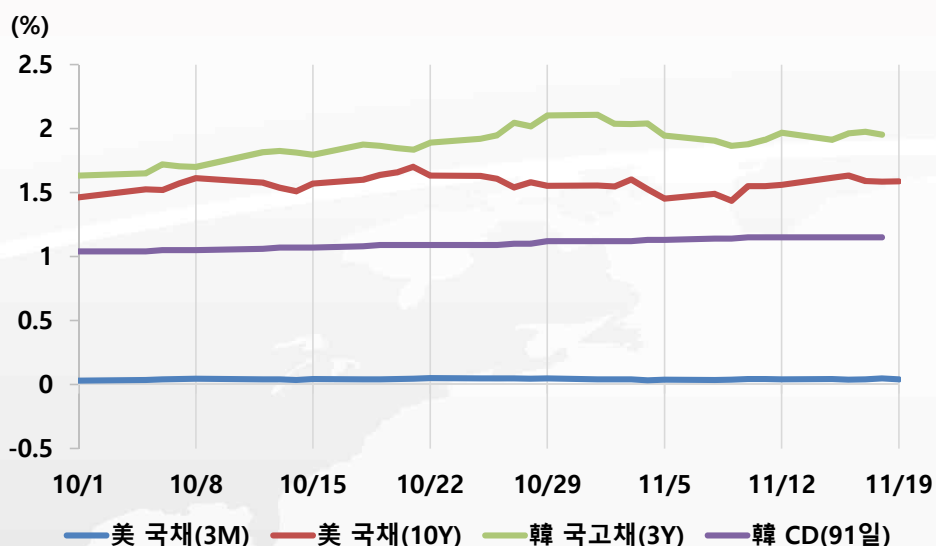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회수 가능성 등으로 금리 상승세 지속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10월말 이후 3분기 성장률 하락 등 경기둔화 우려로 소폭 하락세를 보인 이후 물가 상승폭 확대에 따른 조기 금리인상 기대로 상승세로 반전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11월 중반 이후 경기둔화 우려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, 미국채 금리 상승 및 금통위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

■ 환율 : 미달러화,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고조 등으로 강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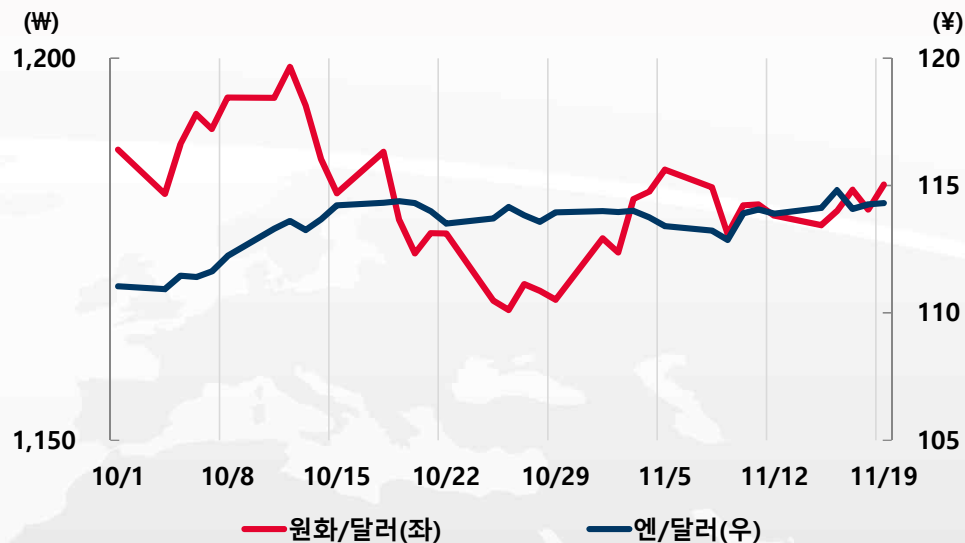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10월 중 수출 호조세 지속,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으로 1,167원/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로 1,183원/달러 수준으로 상승
- (엔/달러 환율)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 속에 경기회복 둔화 지속으로 115엔/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등락 반복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원유 가격은 10월 말 이후 소폭 하락, 천연가스 가격도 10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

- (원유) 11월 초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감염자 수 급증 등 수요위축 우려, 전략적비축유 (SPR) 방출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
 - 유럽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급증에 따른 이동제한 강화 등 수요위축 우려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비축유(SPR) 공동 방출 논의 등으로 10월 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11월 중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 기록(11.17일, 두바이유 \$81.01/bbl)
- (천연가스) 10월초 mmBtu당 6달러대 돌파 이후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, 온난한 겨울 예보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, 11월 중순 4달러 후반대 기록
 -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이 11월 하루 평균 96.1 bcf로 10월 94.1 bcf, 2019년 11월의 월간 기록 95.4 bcf보다 증가하는 등 생산 증가로 10월초 mmBtu당 6달러 초반대 기록 이후 11월 중순 5달러대 붕괴(11.17일, 헨리허브 \$4.82/mmBtu)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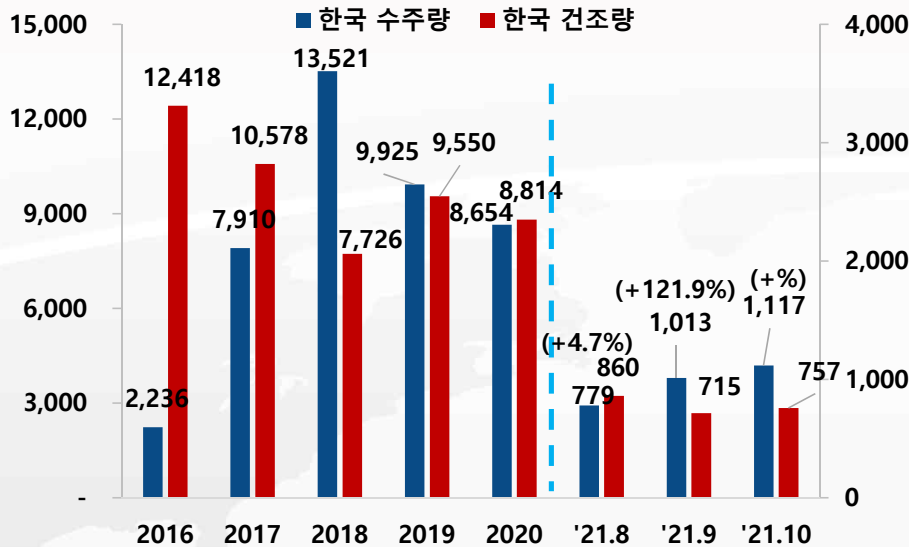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10월 수주는 2개월 연속 100만CGT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세 유지

- 10월 세계 발주량은 다소 부진하였으나, 한국은 절반 이상을 수주하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
 - 10월 세계발주량은 213만CGT(전년동월 대비 +0.2%), 10월 누적치는 4,099만CGT(전년동기 대비 162.2%)
 - 10월 한국 수주량은 112만CGT(전년동월 대비 +15.2%), 누적치는 1,579만CGT(전년동기 대비 +360.6%)
 - 10월 수주액은 27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4.9%), 누적 수주액은 396.7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301.1%)
 - 10월 한국 수주는 LNG선, 대형 및 중형 컨테이너선, 중형 제품운반선 등으로 다양화되며 세계 발주량의 52.4% 점유
- 10월 선박 수출은 다소 부진한 수준
 - 10월 수출액은 15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6.4%), 누적 수출액은 180.3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3.2%)
 - 선박 수출은 하반기 이후 점차 일감이 부족해지며 상반기 대비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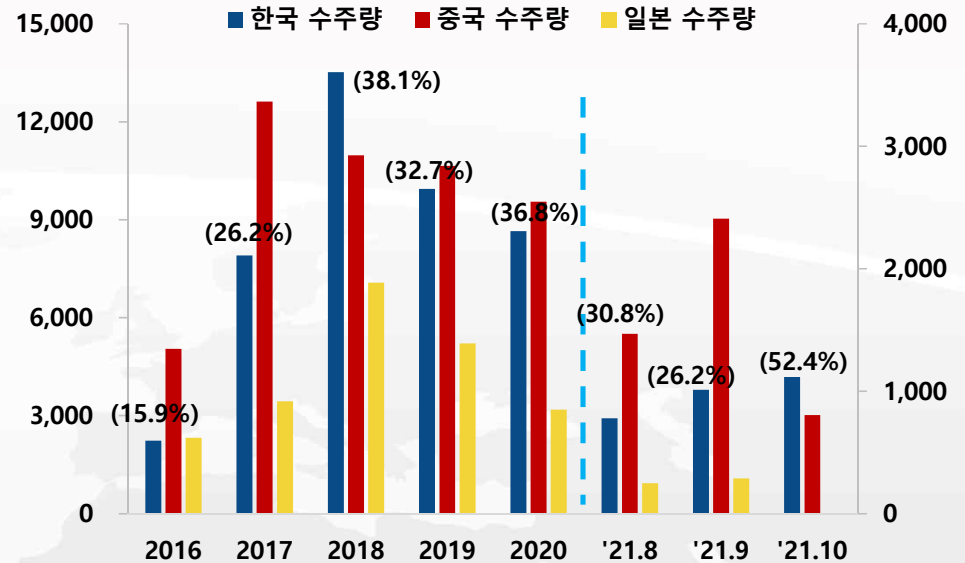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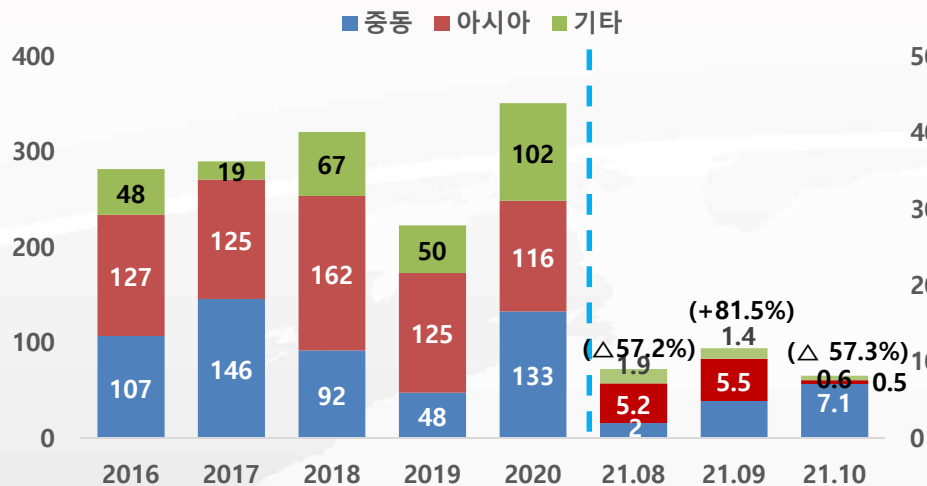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■ 10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57.3% 감소한 8.2억 달러

- (지역별) 10월중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7.1억 달러, 아시아 0.51억 달러, 유럽 0.42억 달러 기록,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매우 부진한 양상
 - 10월까지 지역별 누적 수주액은 중동(55.9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Δ 34.2%), 아시아(79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Δ 16.6%), 북미(15.5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+198%), 유럽(22.3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+147.7%)
- (공종별) 플랜트 7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.7%), 토목 0.1억 달러(Δ 98.6%), 건축 0.4억 달러(Δ 89.1%) 기록
-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집중되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, 10월중 수주 상황이 부진해 올해 300억 달러 수주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10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38.3억 달러, 17.8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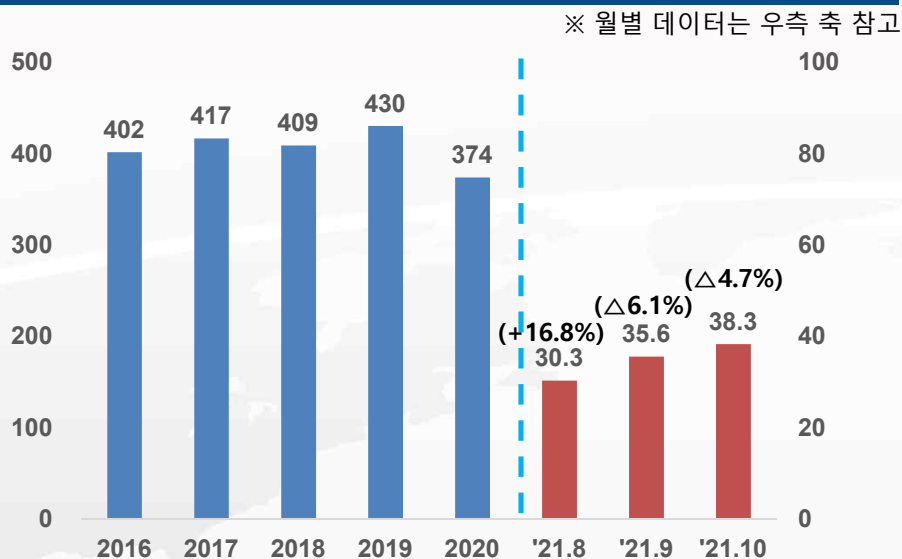
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.7% 감소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41.8% 증가

-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어 자동차 수출대수는 18.1% 감소하였으나,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 확대로 수출액은 4.7% 소폭 감소
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1.8% 증가한 11.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총수출액 중 29.7% 차지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: ('20년10월) 20.0% → ('21년 8월) 27.5% → ('21년 9월) 29.4% → ('21년 10월) 29.7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대수 기준): 전기차(43.4%), 하이브리드(46.7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9.8%), 수소차(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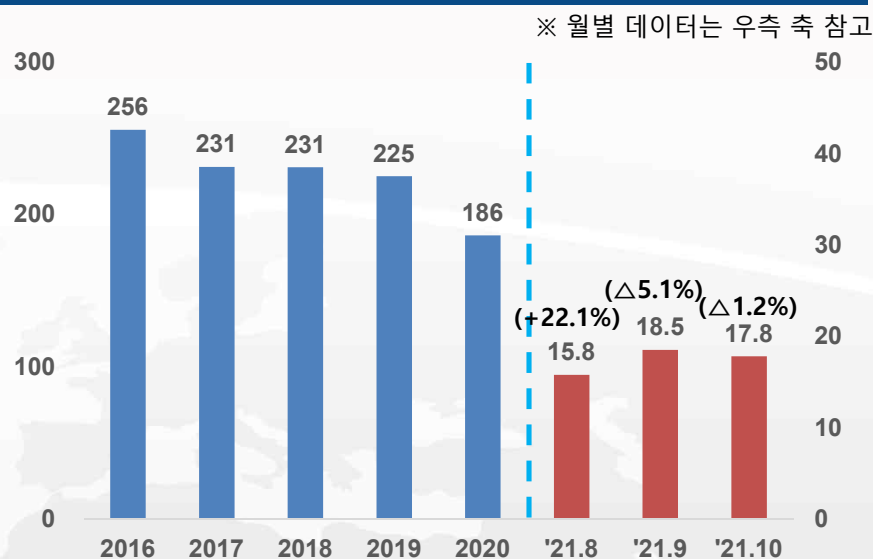
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.2% 감소한 17.8억 달러 기록

-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해외 완성차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부품 수출액 감소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비중: 유럽(29.0%), 북미(28.7%), 아시아(27.7%), 중남미(10.2%), 중동(3.5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10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8.4%, 5.8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.4% 증가한 112.3억 달러로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 가격 하락에도 견조한 수요(모바일·서버)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8.1% 증가한 69.5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0~12)2.85 →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~9)4.1 → (10)3.7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2.3% 증가한 37.3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: ('21.1)76.1 → (3)78.1 → (5)83.6 → (7)84.0 → (8)84.4 → (9)87.0 → (10)87.9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.8% 증가한 22.4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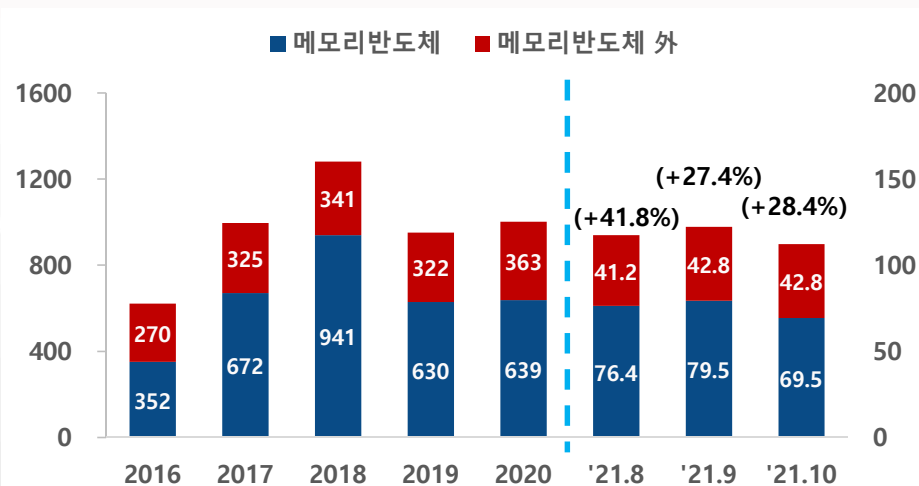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·TV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.7% 증가한 13.9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가격지수(2017.12=100):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7)52.2 → (8)51.8 → (9)50.2 → (10)50.8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패널 가격 하락,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.6% 감소한 5.1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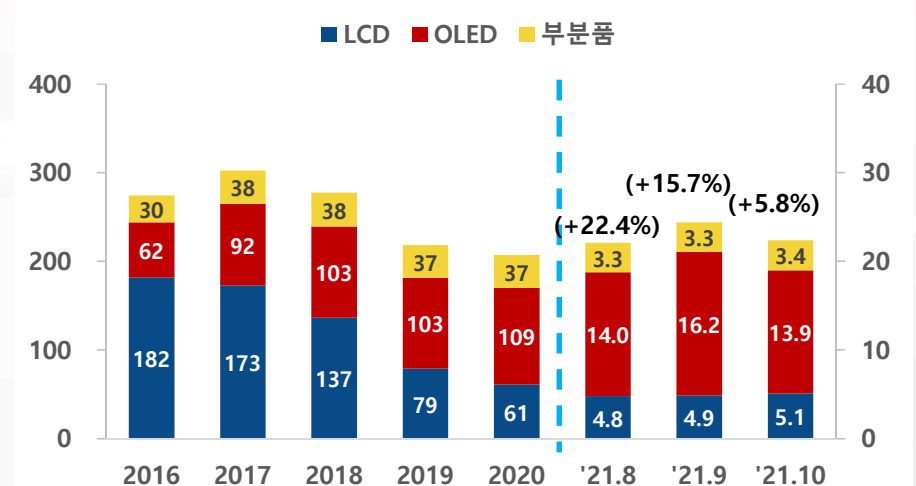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10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7.4% 증가, 통신장비는 1.1% 감소

•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이 크게 증가(+21.2%)하여 전년동월 대비 17.4% 증가한 13.8억 달러 기록

- (수출증가) 프리미엄 스마트폰* 및 관련부품 수요가 지속되며 완제품(+9.0%) 부분품(+21.2%) 모두 증가세

*삼성은 3세대 폴더블 등 플래그쉽 모델을 중심으로 서유럽 휴대폰 시장에서 흥행하며 유럽시장 점유율 1위(30.4%)를 기록 (카운터포인트리서치, 2021)

- (전망) 샤오미, 오포 등 중국기업에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내주며 삼성의 시장점유율이 감소*하였으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활약으로 회복 중

*21년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: 삼성(23%), 애플(15%), 샤오미(14%), 오포(10%), 비보(10%) (Canalys, 2021)

• 통신장비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(△1.1%) 하였으나 '2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5G산업 활성화*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화웨이 통신장비 배제** 등으로 시장 확보 가능성 증가

*5G 및 4G/LTE 통신장비 시장은 연평균 24.9% 성장 예상(IDC, 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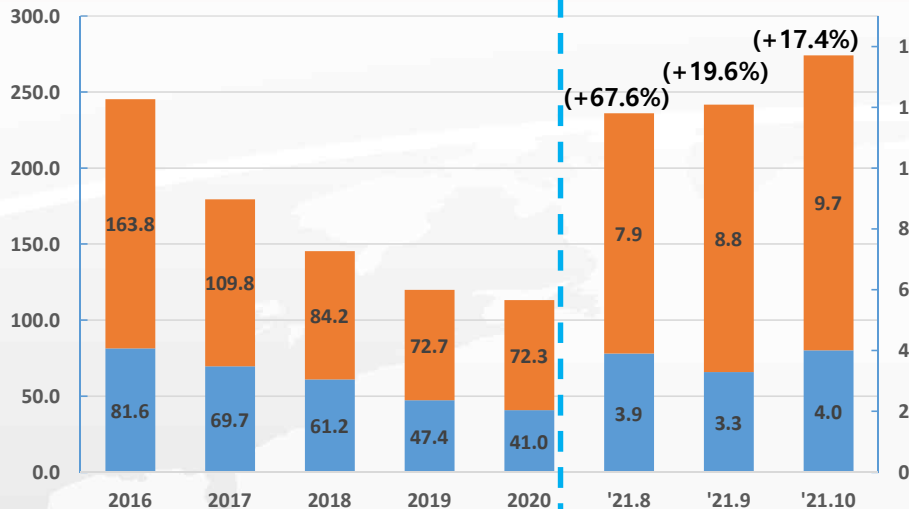
**베트남 5G 상용화 단계에서 중국장비 도입 배제로 수출량 증대, 삼성-버라이즌 5G 통신장비 공급계약(20.09) 등

- 5G SA 표준*이 활성화되며 LTE-5G 장비 연계성이 제거됨에 따라 기존 3강(화웨이·에릭슨·노키아)체제의 변화가능성 존재

*SA(StandAlone): 초저지연·초연결을 위한 표준기술로, 현재 사용중인 NSA(non-SA) 5G 통신방식은 4G(LTE) 통신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장비와의 연계성이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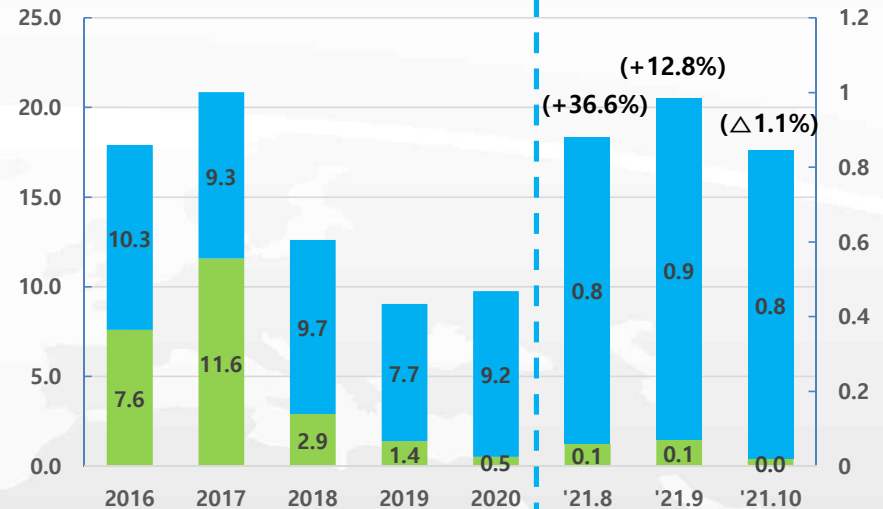
휴대폰 수출액 (억 달러)

■ 휴대폰(완제품) ■ 휴대폰(부분품) 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통신장비 수출액 (억 달러)

■ 기지국 ■ 중계기·모뎀 등



주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